

'달빛 동행, 모양성 구경가세, 별빛 야행'

5년 만에 돌아온 '고창 국가유산 야행'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로 성황리 개최

5년 만에 다시 열린 '2025년 고창 국가유산 야행'이 지난 13~14일 양일간 고창읍성과 신재호 고택, 오거리당산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달빛 동행, 모양성 구경가세, 별빛 야행'을 주제로 초여름밤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로 풀어내며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야설(夜說)'의 '목화, 6월 밤을 그리다'는 환상적인 분위기로 야행의 시작을 알렸고, 고창오거리당산제를 재현한 '갈곳'과 '당산줄감기 퍼레이드'는 신명나는 볼거리를 제공했다.

지역 청소년들의 '달맞이 오케스트라' 연주와 전통 줄타기 '은하수를 걷는 예인' 공연 역시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무대로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고창의 역사와 이야기를 직접 체험하는 '야로(夜路)'도 인기가 많았다. '모양성 이야기꾼'은 고창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하게 했고, 환경 보호와 재미를 결합한 '모양성 플로깅', 흥미진진한 '붓집장수를 이겨라!' 미니게임, 해설사와 함께 음성을 걷는 '다같이 돌아 음성 내 한바퀴'는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아름다운 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었던 '야



5년 만에 다시 열린 '2025년 고창 국가유산 야행'이 지난 13~14일 양일간 고창읍성과 신재호 고택, 오거리당산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경(夜景)' 공간은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판소리박물관 앞 잔디밭에 꾸며진 LED 장미와 달, 토끼 조형물은 최고의 포토존으로 각광받았으며, 달집 소원달이기 체험은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으며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이번 야행은 고창의 국가유산을 색다르고 매력적으로 선보이면서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관광객 유치에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했다는 평가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야행을 통해 고창의 찬란한 밤이 모두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고창의 소중한 국가유산을 활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지속 선보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비전대학교는 지난 13일 비전관에서 글로벌 영화제작사 '쿠뮤필름스튜디오 코리아'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비전대-쿠뮤필름스튜디오 코리아 협력

방송·뷰티 융합 콘텐츠 교육과정 신설 등 산학협력 협약 체결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13일 비전관에서 글로벌 영화제작사 '쿠뮤필름스튜디오 코리아' (대표 유성환)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쿠뮤필름스튜디오는 아바타, 반지의 제왕, 물안개 등 세계적 블록버스터의 촬영지로 유명한 뉴질랜드 기반 글로벌 영화제작사로, 올해부터 전주 영화중화합영소를 위탁 운영하며 전주를 아시아 제2의 영상제작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주비전대 방송영상디자인과와 미용건강과를 중심으로 △현장

전문가 마스터클래스 △영화·영상 실무(특수분장, 헤어, 메이크업 등) 중심 실습 프로그램 △K-뷰티와 영상 콘텐츠 융합 교육과정 △해외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한다.

박용균 기획처장 겸 교수(방송영상디자인과)는 "학과의 전문성과 쿠뮤필름스튜디오의 세계적 제작 역량이 만나 실질적인 글로벌 실무교육이 가능해졌다"며 "학생들에게 세계 수준의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영상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교양총서 제9권 발간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는 교양총서 제9권 '기억해야 할 전주의 조선 이야기'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기억해야 할 전주의 조선 이야기'는 조선 왕실의 분향인 전주의 큰 이야기, 작은 이야기를 엮어 전주의 모든 것을 담았으며, 설명에 사진을 곁들여 이해도를 높였다.

저자인 홍성덕 교수(역사문화학과)는 전주·전북 지역의 자료 조사와 문화정책, 콘텐츠, 박물관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주대학교 대외부총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전북문화재위원을 역임했다.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의 주제는 '전주는 어떤 도시인가?'이다. 전주를 대상으로 삼은 이유, 전주가 조선 왕실의 분향인 까닭, 호남 제일의 도시로서의 역할,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을 꿈꾸는 전주의 대동정신을 담았다. 2부의 주제는 '전주의 조선, 조선의 전주'이다. 전주라는 지명이 처음 생긴 시기를 비롯하여 전주이씨의 발원을 말해주는 조경묘와 조경단, 이성계의 어진과 경기전을 다뤘다. 또한 전주를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한백당, 풍남문, 전주사고의 속사정과 전주성의 시장 풍경도 담았다. /장은성 기자

아프리카 인문학 연구 본격 시동

전북대, 120억원 규모 '인문한국 3.0' 사업 선정... 연구 프로젝트 출범

전북대학교 프랑스·아프리카연구소가 '인문한국 3.0(HK 3.0)' 사업에 선정, 아프리카 인문학 연구의 새 재황을 여는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를 본격 출범했다.

16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13일 인문사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이준화 연구부총장을 비롯해 김영재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카이스 다라지(Kais Daragi) 주한 튀니지 대사, 농촌진흥청 이경태 국제기술협력과장 등 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연구 사업의 시작을 축하했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총 12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연구다. 전북대 프랑스·아프리카연구소는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한림대학교 글로벌 사회공헌연구소 등 4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각 대학 HK연구진들이 연구 방향과 과제 계획을 공유하고, 미래 협력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특히 1부 행사로 진행된 카이스 다라지 주한 튀니지 대사의 초청 강연은 '튀니지의 역사와 현대를 말한다(Tunisia, history and modernity)'를 주제로



튀니지 MZ세대가 처한 사회·경제적 현실과 민주화 이후의 변화상을 조망해 눈길을 끌었다.

이준화 연구부총장은 "HK 3.0 사업은 전북대가 인문학의 국제화를 선도하고, 글로벌 학문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학 차원에서도 연구소의 안정적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화림 프랑스·아프리카연구소장은 "세계 수준의 아프리카 인문학 연구를 통해 새로운 학문적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학문후속세대 양성은 물론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에도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은성 기자

'완주예술방학-夏' 레지던시 참여예술가 모집

(재)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은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 2025 '완주예술방학-夏'의 참가 예술인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완주예술공간을 거점으로 운영되며, 예술인에게 창작 공간과 숙소, 지원금을 제공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완주예술방학-夏' 레지던시는 작업형과 거주형으로 구분되며, 완주군 내 예술가는 작업형(예술공간 2동), 외부 예술가는 거주형(예술

공간 3동)에 신청할 수 있다. 시각예술, 설치미술,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예술인가로 개인 h는 3~4인으로 구성된 팀도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예술가(팀)에게는 숙소와 작업 공간이 제공되며, 총 200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한다.

모집기간은 27일까지이며, 이메일로 접수가능하다. 레지던시 입주기간은 7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운영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북대 중앙도서관, 웹소설 작가되기 프로젝트 운영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인문학적 소통과 공감, 창의적 표현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웹소설 작가되기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젝트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웹소설 시장의 창작 수요에 부응해 현직 웹소설 작가에게 직접 글쓰기를 배우는 전문 과정으로 기획됐다. 웹소설 작가와 함께 기본적인 작업부터 원고 작성, 1:1 피드백 등을 통해 웹소설 창작의 전반적인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참가자들은 시놉시스 및 프롤로그 작성

등 기초과정부터 시작해 작품 연재를 위한 원고 작성의 심화 과정까지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만의 웹소설을 완성해 나가게 된다.

상반기 프로그램은 대학 구성원 및 지역주민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 중 지역주민 30%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28일까지로, 전북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안내글을 참고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